

계급별 고부관계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I)

A Study on the Mother and Daughter-in-laws Relationship by Social Clas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강사 裴善姬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Lecture : Sun Hee, Bae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맺음말 |
| II. 계급론적 관점 | 참고문헌 |
| III. 각 계급별 고부관계 특성 | |

〈Abstract〉

The study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re is a social class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of mother and daughter-in-law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upper class, the relationship of mother and daughter-in-laws seems 'fictitious one'.

In the middle class, when her husband's occupation status is higher than his father's, the relationship of mother and daughter-in-laws seems 'the relationship which is troublesome only on daughter-in-law's behalf'.

When her husband's occupation status is similar to his father's and her family is living together with in-laws and she and her mother-in-law are housewives, the relationship of mother and daughter-in-laws seems 'the troublesome relationship for the both parts of mother and daughter-in-laws'.

In the same situation as above except the fact that the mother-in-law is housewife and daughter-in-law wor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daughter-in-laws seems appear to be 'interdependence'.

When her husband is self-employed, the daughter-in-laws keeps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 her mother-in-law.

In the low class, the relationship of mother and daughter-in-laws seems 'neglect' or 'conflicting'.

I. 머리말

본고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가족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고부관계가 계급별로 차별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갈등이라는 부정적 틀내에서만 파악, 접근되고 있는 기존의 고부관계연구가 주로 중간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우리사회에 실제하고 있는 고부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다양한 성격의 고부관계가 실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가족에 대한 계급론적 이론에 의하면, 가족 현상이라도 계급별 측면을 고려할 때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한다(이재경, 1992:117).¹⁾ 실제로 우리의 가족연구에서도 단일계급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계급별 비교를 통해 가족현상의 계급별 차이를 밝히고 있다.²⁾ 그런데 아직까지 고부관계 연구에서는, 한남제(1984:225)도 지적하였지만 계급별 차별성에 착안하여 접근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물적토대가 가족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접근된 기존의 고부관계 연구들은 실제하는 고부관계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고부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한 남성을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두 여성이 법적으로 맺게 되는 부모-자녀관계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부계가족제도 하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여겨지는 가족관계이기도 하다.³⁾ 이 광규(1984:22)는 이를 극단적으로 '원천적인 부정관계'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고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그 대부분이 고부갈등의 원인(이광규, 1975, 1984; 유가효, 1976; 황춘선, 1979; 박부진, 1981; 권정자, 1984; 이기숙, 1985; 이영환, 1986; 송경아, 1987; 박영숙, 1987; 고정자, 1989; 박현옥, 1989; 이정연, 1990; 성인에, 1991)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부권과 명령권을 관련시킨 권력구조면, 아들/남편과 시어머니, 며느리의 삼각관계를 다룬 애정구조면, 그리고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역할구조면을 중심으로 갈등원인을 다루고 있다. 그 외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이영환, 1986; 박현옥, 1989)를 규명하고, 동거여부, 취업여부(권정자, 1984; 지장순, 1988), 대처행동(이정연, 1990), 스트레스의 문제(정혜정, 1993)를 고부관계와 관련시킨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들은 고부갈등이 물질적 요인보다 정신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김광일·남정현, 1978; 고정자, 1989).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고부관계를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중산층을 연구대상으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다.⁴⁾ 이와 같이 중산층에 연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중산층 가족이야말로 한

1) 이는 엥겔스(1884/1972)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계급 및 계층에 따라 가족의 모습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계급분화적 가족이론'에서 시작된 것인데 오늘날 많은 가족학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조은, 1990:202).

2) 단일계급에 관한 것은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0, 1994)의 『한국가족론』, 『여성과 한국사회』를, 계급별 비교는 김영란(1988), 백육인(1995)의 논문을 참조.

3) 부계부권적 가족제도에서 중추적 관계는 부자관계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장남)이 축이되고 이 축을 통해 혈통과 권력이 보장되며 다음세대로 부계와 부권이 전수된다. 가족내 권력의 원천이 바로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가족내 다른 관계(모자관계, 고부관계, 부녀관계, 모녀관계)가 이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 축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결혼을 통해 남성가족의 일원으로 편입하여 들어가는 며느리는 가족의 권력 위계서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며, 아들을 통해 권위와 권력을 얻게 된다. 즉, 어머니에게 아들은 생존의 기반이며 애정의 상대인 것이다. 이런 관계에 끼게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경쟁대상이 되고 시어머니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고부갈등은 부계가족제도하에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의 가족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명분도 살리고, 표집대상을 구하기 쉽다는 점에서 연구의 편의성도 높고, 대부분의 연구자가 중산층의 배경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유사한 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온 탓일 것이다(이동원·함인회, 1992:151). 그러나 중산층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이기에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연구결과를 얻기란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고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들 중산층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이든지 ‘심리적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으로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종속되는 관계인 상류계급이나 기본적인 생계비조차도 벌기 어려운 하류계급에서는 이와는 다른 고부관계의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연구결과를 전체 고부관계에 일반화시켜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고부관계의 성격이 그 가족의 물적기반에 따라 다양하게 실재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으로 각 가족의 모습이 계급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계급론적 관점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각 계급의 고부관계 특성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같은 가족현상이라도 그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계급론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론적 관점이나 계급분류와 같은 면을 깊이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본 고에서는 계급론적 관점에 의거해 각 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에 한정하였지 이것을 검증하는 작업은 시도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후속연구를 통해 각 계급의 고부관계 특성을 검증할 것이다.

II. 계급론적 관점

가족연구에서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계급론적 관점의 적극적인 수용은 비교적 최근의 가족사 연구에서 계급별 가족의 존재양태가 새롭게 조명되는 시점과 일치한다(김홍주, 1993:180).

이 관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이론에 기초한 풍부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및 정치 사상이다. 사회체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는 식량과 물질을 생산해야 한다는 단순한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생산활동은 사회를 규정하는데 중심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사회질서의 모든 다른 측면(가족, 교육, 법제도, 지식체계, 신념, 가치체계 등)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구분하였고, 상부구조의 성격은 하부구조의 성격과 잘 맞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서 마르크스는 생산의 사회조직에서의 결정적인 특징은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른 두 개의 대립적인 계급으로 사회가 분화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관해 쓰면서 마르크스는 산업적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강제로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근본적인 계급분화를 기술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사회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변한다고 믿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생산력의 발전이 일어나고 바로 이것이 사회질서의 모순을 가져와 사회적 생산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계급갈등은 사회질서에 내재한 것이고, 변화는 대립적인 세력들간의 갈등의 결과로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계급론은 이와 같은 분석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가족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그의 동료인 엥겔스

4) 선행연구 중 유가효(1976)의 연구만이 제목에 중류층이라는 연구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대부분의 연구도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계급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ngels)는 물질적 토대에 인간재생산을 위치시킴으로써 사회의 전체조직에서 가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당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핵가족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면서 가족은 자연적이거나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산양식(물질적 토대)에 조응하여 변화하는 실체(entity)라고 주장하면서 마르크시즘 가족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계급 가족의 열악한 생활실태를 분석하면서 자본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가족의 계급별 변화의 상이한 양태와 이의 착취관계를 지적하여, 가족변화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급관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통찰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자본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물질적 토대를 파괴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노동자계급의 가족을 부식한 바로 그 변화가 자본계급의 가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동계급의 가족문제는 바로 이러한 착취에서 야기되는 빈곤과 가족생활의 열악한 상태를 들 수 있다. 한편 자본계급 가족의 강화는 명백히 부르주아적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가족의 생산적 측면이 사라지면서 가족관계는 오로지 '단순한 화폐관계'로 변화됨을 말해준다(김홍주, 1994: 17).

한편 가족에 대한 계급론적 관점에서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노동계급 가족은 붕괴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실제로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전략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특히 스코트와 톨리(Scott and Tilly, 1975)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영국과 프랑스 가족을 분석하면서 가족원 일 인의 소득원으로는 전가족을 유지할 수 없는 가족인 경우에 생존전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Humphries(1977)도 19세기 마르크스주의자의 견해가 가족을 부르주아적 재산관계의 산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특히 노동계급에서는 가족이 억압속에서 동료의

식을 만들어내고 개인주의 대신에 상호의존성을 강조시켰다고 주장하였다(신광영 외, 재인용; 1994, 213-214).

이상의 사실을 통해볼 때, 계급론적 관점은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경제적 착취로 전체사회가 분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가족은 바로 그러한 계급을 재생산함으로써 전체사회의 분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의 가족관계는 화폐관계로,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가족은 상호의존적 관계나 방기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급론적 관점의 이러한 측면이 고부관계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우리사회에 각 가족의 물질적 기반에 따른 다양한 고부관계가 실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고부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가족의 물질기반은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각 계급별 고부관계의 특성

1. 고부관계 분석을 위한 계급별 분류

본고는 계급별 고부관계의 특성을 알아보려는 것이기에 먼저 각 가족의 계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가장의 직업에 따라 그 가족의 계급을 분류하는 방법이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가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한 분석틀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⁵⁾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김미숙, 1994: 173). 계급분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본 연구는 고부관계의 다양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계급분류는 필요없다고 사료되어 상류계급, 중간계급, 하류계급으로 구분한 구해근(1992)의 계급분류⁶⁾를 이용한다.

5) 가족의 계급을 가장(남편)의 직업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되어 여성이 직접 계급구조와 연결되면서 특히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논의로는 조은(1990, 1991), 박숙자(1991)의 연구가 있다. 한편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인이 가장이 아닌 한 가족의 계급적 지위에 부인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가족이 계급의 기초단위가 되며 따라서 가족의 계급은 가장인 남편의 계급지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각 계급별 고부관계의 특성을 논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고부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다른 계급에 비해 특히 중간계급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계급재생산여부와 주부의 취업여부가 그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간계급부분에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때때 부르조아지도 이 계급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해근의 계급분류의 의해 중간계급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물론 학자에 따라 때때 부르조아인 자영업을 독립된 계급으로, 아니면 하류계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2. 각 계급별 고부관계의 특성

각 계급별 고부관계의 특성은 다음의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하나는 계급론적 관점을 이용하여 가족현상을 접근한 연구들의 결과이며, 다른 하나는 고부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중에서 계급별 고부관계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⁷⁾ 그러나 선행연구가 중간계급의 고부관계에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상류계급과 하류계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이들 계급의 고부관계의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 상류계급

상류계급은 자본가와 정치엘리트로 구성된다. 정치엘리트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6) 구해근의 부문별 계급분류

사회계급	기업부문	관료부문	비공식부문	농업부문
상류계급	자본가계급	정치엘리트	-	-
중간계급	화이트 칼라	일반관료	때때 부르조아지	부 농
하류계급	공장노동자	-	주변적 노동자	소작농 · 농업노동

출처:Koo(1982:51)

7)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부관계의 계급별 차별성을 알아본 선행연구는 없다. 또한 단일계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중에서도 상류계급이나 하류계급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 중에서 그 가족의 계급적 기반을 예측할 수 있는 소득이나 주관적 계층의식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각 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자본가계급을 중심으로 상류계급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집단으로, 정치, 이데올로기, 교육, 예술 등의 사회 제반영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자본가계급에서 가족은 재산이 축적되고 상속되는 단위이며, 기업경영은 가족성원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자본가 계급의 가족관계는 「경제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의 속성상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세대가 기업계승 등의 도구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세대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고, 따라서 이들의 가족관계는 재산의 분배와 상속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급에서는 잡지나 TV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살고 있다.

상류계급 가족에서 부인들의 경제활동은 매우 낮아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다른 계급과 비교할 때 가장 높다. 전국조사 계급별 부인의 취업여부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대개 자본가계급의 80-90%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 계급의 여성들은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에서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과 시간적 여유를 누리지만, 다른 계급의 여성보다 더욱 여성성이 요구되고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적 성윤리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주로 가족을 대표하는 자선활동에 국한된다. 따라서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상류계급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들 계급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류계급에 대한 유일한 연구인 공정자(1989)의 '한국대기업가의 혼맥에 관한 연구'는 이 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예측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의 연구에서는 재벌가에서는 재산의 상속과 분배, 그리고 자본가 간의 동맹과 세력확장의 수단으로서 결혼의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상류계급의 결혼형태가 연애혼이기 보다는 정략결혼의 형태를 띠면서 부부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일 수 있으며, 고부관계도 허위적 관계의 성격을 띠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송복(1994)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아직까지 덜 폐쇄적이어서 결혼을 결정할 때 자녀들의 자유 의사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연애혼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형태와는 상관없이 상류계급에서의 고부관계 성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기업경영에 아들이 참여하고, 또한 부모-자녀간에 상속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측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계급의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계급적 지위를 바탕으로 며느리에게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고, 반면에 시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며느리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명령과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류계급에서의 고부관계는 애정에 기반한 진정한 인간관계이기 보다는 금전으로 연결되는 형식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며느리의 심적 고통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류계급의 고부관계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이영환(1986)의 연구는 이 계급의 고부관계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물론 그의 연구대상이 상류

계급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계급의 특징이라고 간주하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갈등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상류계급의 고부관계에 대해 이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다. 이광규(1975:129)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가족에서는 시어머니가 너그러울 수 있고 고부가 직접 동일 장소에서 작업을 같이 하지 않으며 또 사회적 체면 때문에 고부간의 불화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권정자, 1984; 윤유경, 1986; 박현옥, 1989; 성인애, 1991)들도 한국궐립조사(1984)에서 나타난 시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가 장남이나 기타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부모와 동거하려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계급의 고부관계가 다른 계급의 고부관계에 비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상류계급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경제적 풍요로움 때문에 이로 인한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게 하지만 바로 그것이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면이라든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와 동거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들의 관계 자체가 애정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방법론에 있는데, 왜냐하면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고통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상류계급에서의 고부관계는 경제적 풍요로움이 고부관계를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관계로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경제적 풍요로움은 자녀세대의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부관계를 지배-종속 관계로 만들어, 며느리는 불만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허위적인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2) 중간계급

중간계급은 다양한 화이트칼라 직종에 근무하는 정신 노동자 및 교사·판료 등 국가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정신노동자층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가족을 통해 상속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계급 같이 무산계급도 아니다. 이들은 임금수준 뿐 아니라 승진기회,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노동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계급의 경제적 특징은 가구주의 임금이 노동자에 비해 많고, 임금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증권투자에 의한 소득, 부모의 도움 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또한 노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간계급으로의 배분과정을 보면 이들의 부모세대는 거의 자본주의 계급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이 직접 현재의 중간계급으로 재생산된 일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지위를 받아서 현재의 계급지위를 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계급 가족에서는 전형적으로 성에 의한 역할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간계급 가족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며, 부인은 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 남편은 가족의 가사노동에서, 부인은 사회적 노동에서 면제되어 있다. 전업주부의 비율이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 계급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이유는 경제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비생활이나 자아실현의 욕구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간계급의 특징인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안정성은 이 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먼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동거를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이 계급의 고부갈등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고부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며느리가 남편의 경제적

을 믿고 과거와는 달리 그 불만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표출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아들을 키운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며느리가 자기에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이기숙(1985)은 이 계급에서의 고부관계의 성격을 시어머니의 상대적 비교, 이기심, 소외감 등에서 며느리가 갈등을 느낀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 비교요인은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해 말씀하신다거나 며느리의 서투른 살림살이와 낭비, 그리고 가정살림에 간섭, 잔소리가 많다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모의 이기심 요인은 시어머니가 매사에 참견, 간섭하시고 친척이나 손님 앞에서 좋은 어머니인 척 하는 것, 소외감 요인은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서 며느리를 제외시키거나 며느리 이야기를 무시하고 딸과 며느리를 달리 대하시는 행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갈등요인은 일상생활에서 속에서 부딪히며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가효(1976), 장경섭(1992:182)도 고부갈등의 문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남편을 둔 젊은 부인이 자발적인 경애감 없이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서만 시부모부양을 전담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여 고부갈등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야기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중간계급에서는 자녀세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급의 고부갈등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규정짓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자녀의 이러한 경제적인 특징은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을 때 과거와는 달리 며느리는 그 불만을 시어머니에게 표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중간계급 고부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간계급의 고부관계를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이 계급에서 증가되고 있는 기혼 여성의 취업여부와, 계급재생산 여부는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며느리의 취업여부와 고부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시부모와 아들부부가 동거할 때 이 요인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고부 양쪽이 전형적인 전업주부로 같은 공간에 하루종일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갈등이 더 심화되는 반면에, 며느리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부간에 부딪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고 또한 시어머니로부터 가사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고부관계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권정자, 1984). 그러나 이 경우 시어머니의 이해여부가 고부관계 성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권정자(1984)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취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는 경우에는 고부관계는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전보다 심한 갈등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계급재생산 여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자녀세대의 계급이 상승되었는가, 아니면 재생산되었는가의 문제는 고부관계 성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계급상승된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의 계급상승은 대체로 부모의 끊임없는 교육투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녀세대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반면, 부모세대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투자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부갈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자기가 고생한 댓가로 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므로 아들부부에게 정당하게 경제적 요구를 할 것이고, 반면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러한 요구를 부당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세대의 계급이 자녀세대로 재생산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는 중간계급의 특징으로 보아 양세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특히 장남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고부갈등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동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간섭이나 통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중간계급에서의 고부관계를 논의할

때 며느리의 취업여부와 계급재생산 여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뼈띠 부르조아에 해당하는 자영업의 경우도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뼈띠 부르조아는 제한된 양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노동이 생산과정에 필수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 계급의 경제적 특성은 소득증대 전략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를 사용하여 소득증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부인을 무급노동자로 사용하여 임금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절약한다. 소득증대를 위해 부부의 노동시간을 최대한도로 늘리기도 한다. 이들의 무급노동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박민자(1989)의 연구를 보면 이 계급의 범주에 들어가는 채소야채상의 경우 월소득 100만원을 벌기 위해 부부가 하루 16시간 이상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부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는데, 노동자 계급이나 화이트칼라 계급에 비해 다소 초과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의 고부관계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자영업의 특성이 이 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시어머니와 동거할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무급노동력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맡길 수 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소득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급에서의 고부관계는 상호협조적인 관계의 성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하류계급

하류계급은 노동자계급과 빈민계급으로 대표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계급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고 어떠한 생산수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노동을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댓가로 받는 임금이 생계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 계급의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하류계급의 이와 같은 빈곤상황은 가

족내에서 정상적인 재생산이나 정서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심한 경우에는 가족간의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하기도 한다.

생계유지비용에도 못 미치는 가구주의 저임금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계급에서는 소득결합(income-pooling)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것이 부인의 취업이다. 다른 계급에 비해 하류계급에서 기혼여성 취업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취업은 자아실현이나 더 나은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구주(가장)의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보아야 한다.⁸⁾ 주로 막노동, 도시중상류층의 가사노동, 노점상, 행상 등의 영세산업, 가내부업의 일을 하고 있다. 빈곤가족을 조사한 조옥라(1990), 조은(1990)의 연구에서 하류계급의 이러한 측면은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하류계급의 특징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적 상태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혼여성의 취업은 이 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계급에서는 자녀세대와 마찬가지로 부모세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계급에서는 공간부족이나 이농으로 인하여 다른 계급에 비해 부모와의 동거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하류계급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부모부양의 사례가 적으며 상호간의 경제적 교환도 저조하고 기혼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도 약화되어 있다고 한다(이효재 외, 1991). 이러한 사실은 하류계급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친척간의 상호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변화순, 1990). 김주희(1990)의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도시의 저소득층은 그들이 처해 있는 매우 제한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형제자매와의 경제적 호혜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빈곤가족의 부

모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열망하는 것만큼 양육에 참여하거나 교육적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계급의 고부관계는 방기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따로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기회도 적고, 또한 각 세대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서로 교류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대체로 방기형태의 고부관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계급에서는 고부관계의 상호의존적인 측면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김미숙(1990)의 '중소도시지역의 빈민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격'이라는 연구에서 중소도시 지역은 3대로 구성된 가구의 상대적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연구자는 이에 대해 경제적 빈곤이 이들로 하여금 혈연에 기반하여 상부상조적 생활양식을 갖게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류계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물질적 기반이 약한 농촌의 고부관계를 연구한 박부진(1994)의 연구는 도시 하류계급의 물질기반이 농촌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류계급의 고부관계성격을 예측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물질기반이 열악하여 며느리는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경제활동에 하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보완적인 고부관계의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류계급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고부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면 계급에 따라 경제적 기초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각계급에서의 고부관계성격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도시빈민가족의 생존전략에 대해서는 조은(1990)의 논문을 참고할 것.

IV. 맺음말

본고는 계급론적 관점과 선행연구를 통해 고부관계의 성격이 각 가족의 물질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계급론적 관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이론은 자본가 계급(부루조아)의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경제적 착취로 전체사회가 분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가족은 바로 그러한 계급을 재생산함으로써 전체사회의 분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계급론적 관점의 이러한 측면은 각 가족의 물질적 기반에 따라 고부관계 성격이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실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준다. 즉, 자본주의화에 따른 계급구조의 심화로 나타난 가족간 물질기반의 차이와 가족의 세대간 계급재생산의 특성은 특히, 효규범이 약화된 오늘날 권리와 의무로 맺어진 고부관계의 성격을 다르게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는 각 계급의 고부관계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류계급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또한 양 세대간에 상속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계급의 고부관계는 애정에 기반한 진정한 인간관계이기보다는 형식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즉,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로 비춰질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관계, 즉 허위적인 관계의 특색을 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중간계급의 경우, 이들은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안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먼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동거를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이 계급의 고부갈등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계급에서는 계급재생산 여부와 며느리의 취업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계급상승된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의 계급상승은 대체로 부모의 끊임없는 교육투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녀세대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반면, 부모세대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투자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부갈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며느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자기가 고생한 대가로 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므로 아들부부에게 당당하게 경제적 요구를 할 것이고, 반면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러한 요구를 부당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세대의 계급이 자녀세대로 재생산된 경우에는 중간계급의 특징으로 보아 양세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특히 장남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고부갈등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동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간섭이나 통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며느리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부간에 부딪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고 또한 시어머니로부터 가사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고부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시어머니의 이해여부가 고부관계 성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경우 제한된 양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노동이 생산과정에 필수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소득증대 전략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를 사용하여 소득증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어머니를 무급노동력으로 활용하여 소득증대를 꾀하거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맡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계급에서는 상호협조적인 고부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하류계급의 경우 많은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가족내에서 정상적인 재생산이나 정서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심한 경우에는 가족

간의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하기도 한다. 이들의 빈곤상황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동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상호교류를 하지못하게 하므로 방기형태의 고부관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상호의존적인 고부관계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이 혈연간의 상부상조적 생활양식을 하는 경우이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고부관계는 각 가족의 물질 기반을 고려했을 경우 우리가 통념으로 가지고 있던 고부관계보다 훨씬 다양한 고부관계의 실재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본고는 이론적 접근과 선행연구를 통해 고부관계의 다양한 성격을 예측하는 것에만 한정했으므로 구체적 실태파악으로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태파악에 의한 구체성의 확보는 앞으로 필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정자(1988). 한국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 고정자·김갑숙(1993). 고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 3) 공정자(1989). 한국대기업가 가족의 혼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4) 권정자(1985). 취업여부에 따른 고부관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5) 김경동(1991). 한국중간계급 연구동향.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서울:다산출판사.
- 6) 김미숙(1990). 중소도시지역의 빈민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격. 『한국가족론』. 서울:까치.
- 7) (1994). 계급별 가족과 여성.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사회문화연구소.
- 8) 김영란(1988). 가사노동에 대한 계급별 사례연구-신중간계급가족과 노동자계급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9) 김주희(1990). 도시저소득층의 친족문제.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 10) 김홍주(1993). 한국가족문제의 특징-기능주의 가족문제론 비판.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서울:문학과 지성사.
- 11) _____(1994). 한국농민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농민가족의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12) 박민자(1993). 사회학에서의 가족연구. 『가족학논집』 제5집.
- 13) 박부진(1994). 한국농촌가족의 문화적 의미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박숙자(1991). 계급연구의 분석단위:기혼여성의 계급적 지위.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서울:다산출판사.
- 15) 박영숙(1988). Minuchin의 이론체계내에서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16) 박현옥(1989).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 17) 배선희(1993). 가족연구의 이론적 시각-기능주의 가족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18) 백옥인(1994). 계급별 생활실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9) 변화순(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의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4).
- 20) 성인애(1991). 한국의 고부갈등.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21) 송경아(1986). 고부간의 갈등원인 및 조정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22) 신광영·조돈문(1994). 노동계급의 가족형성과 친족관계. 『계급과 한국사회』. 서울:한울 아카데미.
- 23)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1). 『한국가족론』. 서울:까치.
- 24) _____(1994).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사회문화연구소.
- 25) 유가효(1977).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원인과 실태-중류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6) 윤유경(1986). 한국의 고부관계 변화에 관한 연

- 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27) _____(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28) 이광규(1975). 부계가족에서의 고부관계. 『인류학 논집』 제 1집.
- 29) _____(1984).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서울:일지사.
- 30) 이동원·함인희(1992). 도시중상류층의 가족. 『가족학논집』 4집.
- 31) 이영자 외(1993). 『성평등의 사회학』. 서울:한울아카데미.
- 32) 이영환(1986). 고부 동거가족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3) 이재경(1991). 가족변화와 복지. 『한국가족론』. 서울:까치.
- 34) 이정연(1992).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35)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 36) 장경섭(1991). 가족문제. 『현대사회문제』. 서울:사회문화연구소.
- 37) 정혜정·서병숙(1993). 고부갈등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 닳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 38) 조옥라(1990). 도시빈민 가족과 농촌 영세빈민가족의 비교. 『한국가족론』. 서울:까치.
- 39) 조 은(1986). 가족사회학의 새로운 연구동향과 이론적 쟁점. 『한국사회학』 20(여름).
- 40) (1990). 도시빈민 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한국가족론』. 서울:까치.
- 41) (1991). 계급론과 사회적영역.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 42) 최효일(1992). 고부갈등에 관한 사회심리적 고찰.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43)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인의 여론 시리즈(3).
- 44) 한남제(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일지사.
- 45) Elliot, F. R.(1986). *The family:Change or Continuity?* Houndmills, Hampshire: Macmillan Education Ltd(안병철·서동인 역. 1992. 『가족사회학』. 서울:을유문화사).
- 46) Koo, Hae-Gen(1982). *A Preliminary Approach to Contemporary Korean Class Structure*. Chang Yun-Shik, Kwan Taie-Hwan, and Peter J. Donaldson(eds). *Society In Transition: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47) Humphries, J.(1987). The origin of the family: Born out of scarning not wealth. Sayers et al. (eds). *Engels Revisited*. London & Newyork: Taistock publication (이정원 역. 1990. 여성의 노동, 여성의 삶. 서울:천지).
- 48) Gittins, D.(1985). *The family in question*.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 49) Langman, L.(1986). Social Stratification. Sussman, M. and Steinmetz, S.(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york:plenum Press.
- 50) Morgan, D. H. J.(1985).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Boston:Routledge and Kegan Paul Plc.